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이 새 옷을 입고
땅이 새롭게 단장을 하자
온 땅에 백합화가 피었습니다.

하늘 가득
바람들이 노래하며 흘러가고
형형색색 새들도
한껏 날개 짓을 하며 더불어 춤을 춥니다.

어디서엔가 동네 아이들이 소리가
시끌벅적하게 들려옵니다.

무엇이 그리 좋은지,
왜 그렇게 좋은지,
심히 좋아 어쩔 줄을 모릅니다.

노인들도, 청년들도
이들을 축복하며 이상을 노래합니다.

우리도 함께 춤출 것이며
함께 좋아할 것이며
함께 찬송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심히 좋으신 주님!

2016년 부활절에...
담임목사 박원호



Jesus has Risen !